

李-朴, 29일 광주서 첫 경제정책 토론

<근해> <근박>

내달 8일 부산·19일 대전·28일 서울 등서 4차례 개최

李 “기선장악 기회 삼을 것” 朴 “경제 취약 이미지 불식”

한나라당이 오는 29일 광주를 시작으로 한 달간 치르는 4차례의 정책비전대회가 경선주자들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상대 후보 정책에 대한 토론과 논쟁을 통해 육성이 가려진다면 90일 경선 대장정의 초반 판세를 결정짓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당내 양대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 시장측과 박근혜 전 대표측은 정책토론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경선관리위가 경선 관련 세부 '게임의 룰'을 확정하는 기구라면 검증위는 말 그대로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기구다.

두 기구 구성의 특징을 보면 당내 인사로 최소화하고 당밖 각계 전문가들을 대폭 기용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는 물론 선관위와 감사원 출신 인사, 세무 전문가까지 골고루 포진시켜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인 것으로도 평가된다.

박근혜 전 대표측은 이 전 시장이 임기 응원식 연설과 토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콘텐츠의 폭과 깊이에서 단연 비교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냈다. 특히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주에서의 첫 토론회의 주제가 경제분야라는 점에서 기선장악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측은 정책팀과 공보팀 소속 7~8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회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토론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과목과 국제 전략연구원 원장인 서울대 류우익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박승준 경제학과 교수 등 정책전문단과 수시로 심층토론 시간을 갖는 한편 토론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박 전 대표=박 전 대표가 통일·외교·안보 또는 교육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신호부부 1주택 공급 공약'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측은 정책팀과 공보팀 소속 7~8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회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토론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전 시장측은 이 전 시장이 임기 응원식 연설과 토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콘텐츠의 폭과 깊이에서 단연 비교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냈다. 특히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주에서의 첫 토론회의 주제가 경제분야라는 점에서 기선장악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이 전 시장으로서도 대선을 앞둔 첫 토론회

라는 점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며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이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과목과 국제 전략연구원 원장인 서울대 류우익 교수를 비롯해 고려대 박승준 경제학과 교수 등 정책전문단과 수시로 심층토론 시간을 갖는 한편 토론도 직접 접하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는 전했다.

◇박 전 대표=박 전 대표가 통일·외교·안보 또는 교육 등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부문에서 약하다는 이미지가 있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이를 불식시키는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이 전 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공약과 '신호부부 1주택 공급 공약' 등에 대해 날카로운 '검증'의 칼날을 들이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표측은 정책팀과 공보팀 소속 7~8명으로 구성된 '정책토론회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토론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전 시장=이 전 시장측은 이 전 시장이 임기 응원식 연설과 토론에 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콘텐츠의 폭과 깊이에서 단연 비교우위에 있다며 자신감을 내보냈다. 특히 오는 29일로 예정된 광주에서의 첫 토론회의 주제가 경제분야라는 점에서 기선장악의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다만 이 전 시장으로서도 대선을 앞둔 첫 토론회

범여 후보자중심 통합론 다시 고개 든다

"8월 경선 위해선 하루 빨리 돌파구 찾아야"

김근태, 6인 연석회의 제안에 주자들 긍정적

범여권 내에서 한동안 잠복해있던 후보자 중심 통합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민주당, 시민사회세력을 묶는 '제3세대 세력간 통합론'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후보들을 중심으로 하루라도 빨리 통합의 돌파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통합론은 대선일정을 역산할 경우, 범여권의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성사시키기 위한 준비사항이 8월말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감안한 주장이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절박감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선거법상 경선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경우 신청 마감시한

은 8월말이 되고 이후에는 물리적으로 위탁경선이 불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선관위 위탁경선 실시주장은 자금사정과도 무관치 않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하는데 45억원 가량의 비용이 드는데 위탁경선으로 치를 경우 선관위가 투·개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2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8월말 선관위에 위탁경선을 신청하려면 범여권 내부적으로 대선주자간, 세력간 오픈 프라이머리 실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에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김근태 전 의장은 23일 공개연설을

통해 "대선 후보자 연석회의를 통해 국민경선을 합의하는 것이 대통합에 기여하는 길"이라며 범여주자 6인의 조속한 연석회의 구성과 국민경선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일단 당내 주자들은 김 전 의장의 제안에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전 자나 나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전 의장은 "지금 당장이라도 날짜를 잡자"며 적극 호응했다. 천정배 의원측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고, 한명숙 전 총리측도 긍정적이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희규 의원은 "대통합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연석회의를 통해 만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선위 '게임 룰' 확정 검증위 후보 도덕성 검증

■ 한 경선위·검증위 역할

한나라당이 29일 대선후보 경선업무 총괄할 '경선관리위원회'와 후보검증을 주도할 '국민검증위원회'를 동시에 발족함에 따라 두 기구의 구성과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첫 번째 정책비전대회는 29일 오후 1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따뜻한 서민경제, 세계를 향한 무한 도전'을 주제로 한 경제분야 정책토론회다. 다음달 8일에는 부산, 19일 대전, 28일 서울까지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경선관리위가 경선 관련 세부 '게임의 룰'을 확정하는 기구라면 검증위는 말 그대로 후보들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기구다. 두 기구 구성의 특징을 보면 당내 인사로 최소화하고 당밖 각계 전문가들을 대폭 기용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띈다. 특히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는 물론 선관위와 감사원 출신 인사, 세무 전문가까지 골고루 포진시켜 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인 것으로도 평가된다.

◇경선관리위=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 부위원장 박진, 간사 이종구, 위원 정진섭 최구식 의원 등 당내 인사는 4명이며, 위원장을 포함할 경우 5명에 이른다. 최구식 의원이 위원회 대변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밖 인사는 총 8명이며 이들의 면면을 보면 학계가 4명, 선관위 출신 2명, 감사원 출신 및 재야법조계 각 1명 등이다.

경선관리위는 8월 18일 또는 19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23일 서울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관리위와 검증위 구성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 인사 줄이고 각계 전문가 대폭 기용

경선관리위원장 박관용·검증위원장 안강민

로 예상되는 경선 일까지 활동하며 책임당원 모집방식을 비롯한 선거인단 구성문제와 여론조사 방식, 경선일 및 경선방법, 선거운동기간을 비롯한 세부적인 '게임의 룰'을 확정하는 등 경선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후보검증위=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위원장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3단계 또는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먼저 약 한달간 예비후보가 제출한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재산, 경력 등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검증위에 신고된 사안과 언론보도에 공표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

는 기독교,불교 각 1명)씩이고 감사원과 국제전문가 출신이 각 1명씩이다.

검증위의 후보 검증 작업은 7월말까지 크게 2단계 또는 3단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증위는 먼저 약 한달간 예비후보가 제출한 본인 및 배우자, 자녀의 병역, 재산, 경력 등 기본적인 신상에 대한 검증 뿐 아니라 검증위에 신고된 사안과 언론보도에 공표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자료 수집을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선채비 서두르는 親盧 '자제 후보 띄우기' 움직임 활발

친노(親盧) 진영이 대선을 향한 '위밍업'을 시작했다. 참여정치포럼 등 의과 '진지 구축'에 주력해온 친노세력들이 이제 자제 후보를 띄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당 복귀를 계기로 '관'을 벌일 여건이 조성된 데다 '손학규-정동영-김근태-천정배'로 비노(非盧) 진영 대선주자의 가닥이 잡혀가는 것도 친노 진영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친노 후보군은 대체로 윤곽이 드러

난 상태다.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유시민 전장관, 김혁규 의원, 신기남 전 의장,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이 이미 출마 가시권에 들어섰다. 최근 들어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잠재후보는 이 전 총리다. 이 전총리는 아직 '확답'을 피하고 있지만 분위기는 출마 쪽으로 기울 듯하다. 이 전 총리는 22일 밤 친노 초선의원들과 만찬회동을 갖고 "사회적 통합, 민주주의 성숙, 한반도 평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자제 후보 띄우기' 움직임 활발

'킹'으로 나서지 않고 '김메이커'의 역할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유 전 장관의 출마여부도 관심사다. 그는 "내가 대선 도전한다는 것은 법제도 안부리고 추수하러 가는 격"이라고 말했으나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주목되는 점은 이 전 총리와 유 전 장관의 관계다. 두 사람은 정치적 사제지간으로 불릴 정도의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둘 중 한명으로 '단일화'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중순까지 범여권 대통합 나서겠다"

정세균 열린우리당 의장

해보니 지역 민심은 대통합이었던 대에서 필패인 상황인데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대통합을 안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중당 박 대표가 대선 전략을 위해서라도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의 색깔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내세우고 있는 '특정세력 배제론'과 관련, 정 의장은 "지난

2002년 당시 국민의 정부에 참여하려던 여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선거 결과는 국민의 정부의 부채를 모두 승계하겠다고 선언한 노무현 후보의 승리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이 대선에서 미래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것을 반증했다"고 주장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BUCK SH SYSTEM ORDER MADE

전국대리점 정찰가격입니다

BUCKISH 유동점

기성복보다 저렴하고 맞춤복보다 기품있는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 벅쉬만의 자랑 비정착 맞춤정장

기성복을 사거나 딱 맞는 사이즈가 없고 맞춤정장을 고집하거나 가격이 부담스러웠다면 이제 영국식 합리주의 맞춤정장, 벅쉬를 만나보십시오.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57-32 전 화 : 062-514-1741 팩 스 : 062-514-1745 후대폰 : 011-9603-1741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수석합격자배출 13,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학원

서울 새롬행정고시학원 광주 상륙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전문학원(전국 25개 학원 체인)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TV방송출연 교수진/저자직강★

개강 6월 1일 첫진도(주간반,야간반) 재직자 무료 수강생 야간반 60명 선착순 모집

합격률1위! 새롬행정고시학원 361-8111 서구청앞(농성동)

대한민국 4700만 웃음친구 한국웃음건강협회 KBS MBC SBS TBC 에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던 웃음교육기관

내 인생을 위한 전환점 "나도 이제 웃고 살자" 누구나 참여가능

웃음치료가 1급 자격과정

일시 : 2007년 5월 26일(토) 09:30 ~ 27일(일), 20시간 / 장소 : 구서부교야 3층(화정동 추선회관 뒷편)

웃음치료가 자격취득 후 활동영역

1. 웃음치료 전문인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종합병원, 일반병원, 노인전문병원, 복지관, 실버사업, 의료복지시설, 각종모임등 웃음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웃음치료를 활동하게 됩니다.

2. 웃음 전문가로써 활동이 기대됩니다.

3. 웃음 클리닉 및 웃음교실 운영 웃음클리닉을 개인 사업장에서 백화점, 할인매장,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사회교육센터, 여성 전문인력센터, 복지센터 프로그램에서 운영하실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관공서, 보건소, 백화점, 유통업체, 일반기업체, 교육업체,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기타 영업조직에서 웃음 및 웃음치료를 강의를 전문으로 할수 있습니다.

조 정 문 1급웃음치료사 한국웃음건강협회 www.haha75.com 문의) 010-2670-0900

상가·사무실 임대

위치 8유동로타리 30m도로변, 상업지역

마지막 1층 166평 임대 (5층 중 2,3,4,5층 임대 완료)

용도 병원, 전시장, 학원 사옥, 사무실, 대형병원 대형식당등 다용도 가능

임대가는 상담후 결정

문의 528-1031, H.P 016-609-1031, 017-609-7968